



메디컬·SKY 검수진이 전해주는 서평



한서인 (고려대학교 의예과 26학번)

학생들이 수능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복잡한 구문과 긴 문장으로 인한 해석상의 부담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더 큰 난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분명 글은 읽고 이해한 것 같은데, 보기는 다 거거서 거거인 것 같아서, 어떻게 답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겨냥해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재가 바로 <END GAME 영어 N제>이다.

<END GAME 영어 N제>는 단순히 고난도의 문항을 나열한 문제집이 아니라, 수능 영어 고난도 독해에서 요구되는 사고방식을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N제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문항들은 겉보기에는 모두 해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답에 이르기까지의 사고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는 최근 수능 영어가 단순한 해석 능력보다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지들이 다루는 내용의 범위와 포괄성을 논리적으로 구분해 내는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설지의 구성은 이 교재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다. 모든 오답 선지를 ‘지엽’, ‘반대’, ‘무관’의 세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고 각 선지가 왜 오답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자신의 사고 과정이 어느 지점에서 어긋났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에 의존해 문제를 풀어 오던 기존의 풀이 습관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독해 과정 자체를 교정하게 만든다는 점이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교재의 문항들은 단순히 “어렵게 만들기 위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해석 자체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정답을 고르는 단계에서 쉽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문을 이해한 이후에도 답을 선택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수능 영어 고난도 문항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혼란과 매우 유사하다. <END GAME 영어 N제>는 선택지 간의 논리적 차이를 매우 미세하게 설정해 두어, 지문을 이해한 이후에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도록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해 수험생은 단순히 해석 위주나 내용을 기억하는 독해가 아니라, 정답을 고르기 위해 지문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세우는 독해 훈련을 하게 된다.

지문 자체가 어렵고 선지는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능 영어는 지문과 선지가 모두 높은 난도를 보이는 문항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출제 기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교재는 이러한 변화까지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지문의 소재는 철학, 사회, 경제, 과학, 심리 등 수능과 유사하게 매우 다양하며, 실제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소재와 주제가 적중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실제 수능과 유사하게 정보의 밀도가 높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지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END GAME 영어 N제>는 ① 지문은 비교적 쉬우나 선지가 까다로운 유형, ② 지문 자체의 이해가 쉽지 않은 유형, ③ 지문과 선지 모두 난도가 높은 유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평가원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출제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 교재는 감에 의존한 풀이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감각적으로 영어를 풀어 오던 수험생일수록 초반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답에 이르는 논리를 끝까지 확인하는 훈련을 반복한다면, 감에 의존하던 풀이 습관을 점차 교정하고, 보다 논리적인 독해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기출 학습을 충분히 마친 이후, 수능 당일 흔들리게 하는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END GAME 영어 N제>는 매우 적절한 고난도 훈련서라 판단된다.





김지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26학번)

최근 수능 영어는 단순한 독해를 넘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아내고, 글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지문은 점점 정교해지고, 선택지는 미세한 해석 및 논리의 차이로 정답을 가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난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 과정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END GAME 영어 N제>는 수능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N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의 근거, 논리적 연결성,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흐름은 모두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시간이라는 압박감이 더해지면 실전에서는 이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은 단순히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의 모음이 아닌, 수능이 요구하는 세 가지 측면에 관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문제 유형별 학습 측면, 독해 능력 측면, 그리고 실전 대응 측면입니다.

첫째, 문제 유형별 학습 측면입니다. <END GAME 영어 N제>은 난이도와 제재를 고려해 문항을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세트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set에는 서로 다른 난이도의 문제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약 유형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 자체는 비교적 쉬워 보이지만 낯선 소재를 활용한 문항들을 다수 포함하여 실전에서 느끼는 체감 난도 상승을 연출하였고, 이는 최근 수능 영어 출제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익숙함에 기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해 태도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독해 능력 측면입니다. <END GAME 영어 N제>은 어휘와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읽기와, 글 전체의 주제와 논리 전개를 파악하는 하향식 읽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독해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개별 문장의 의미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문장 간 논리적 연결과 정보의 위계를 고려하는 담화 수준의 독해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답을 직관에 의존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흐름 속에서 정오(正誤)를 가르는 핵심 근거를 스스로 찾아내는 훈련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엽적인 해석에 매몰되기 쉬운 최근 수능 환경 속에서,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일관된 판단 기준과 정확한 해석 능력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대응 측면입니다. 최근 '불수능'이라 불릴 만큼 변별력이 강화된 수능 영어를 대비해, <END GAME 영어 N제>는 수험생에게 메타인지적 점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맞고 틀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답의 사유를 분석하며 자신의 풀이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적 결함을 점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은 왜 해당 선택지가 오답이 되는지, 자신의 근거가 어디에서 부족했는지를 인식하고,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오답 선지 해설 부분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험생은 자신만의 독해 기준을 세우고,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사고 방식에 맞는 논리적 읽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반복된 분석과 보완은 결국 실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풀이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수능 영어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END GAME 영어 N제>는 말 그대로 '끝을 결정짓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머리말

END GAME.

사전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End game (n.) — 마지막 단계,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국면.”

수능 영어 1등급으로 가는 ‘END GAME’은
평균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는
고난도 유형 중, 정답이 불확실하고
읽기에서 변수가 많은 ‘고난도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시간은 부족하고, 글은 읽히지 않으며,
정답의 근거는 찾을 수 없는
미세한 논리의 결을 따라 숨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지문은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답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 지문이라는 것을
수험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바로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1. 선지의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여 오답을 고르는 순간.
2. 지문의 소재가 추상적이거나 낯설어서 글 전체가 부엌게 보일 때.
3. 비유적 표현의 의도를 간파 하지 못해 내용이 튕겨 나갈 때.
4. 반복되는 단서를 놓쳐 핵심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때.
5. 정보가 과잉된 지문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감조차 통하지 않을 때.

이 다섯 가지는 단순히 ‘틀리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수능장에서 실제로 발목을 잡는, 1등급으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리고 <END GAME 영어 N제>는
제작 과정에서 이 다섯 가지 포인트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극강의 독해력과 논리력, 그리고 실전력을 함양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END GAME 영어 N제>는
평가원의 출제 논리를 분석하여,
이를 직접 반영한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된 N제입니다.

기출이 익숙한 학생들,
더 이상 쉬운 문제로는 실력을 끌어올릴 수 없는 학생들,
'수능장에서 가장 큰 변수'를 미리 학습하여,
진짜 수능을 이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이 책의 모든 문항은
실전보다 정교하게, 기출보다 날카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보다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수능 날, 진짜 승부는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됩니다.

이 교재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여러분은 수능장에서 가장 단단한 수험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수능 날 마주할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1등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메가스터디 러셀 영어강사

함정민 드림



학습가이드

1. 각 Chapter의 SET는 4지문 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인의 학습 계획에 따라 하루에 풀 지문 수를 스스로 조절해 주세요.

2. <END GAME 영어 N제>는 독해력·사고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시간 내 빠르게 푸는 연습' 보다는 정답을 확신할 때까지 끝까지 읽고 생각하는 학습을 권장 합니다.

3. 문제 풀이 후에는 아래 4단계 학습 루틴으로 정리합니다.

1단계. 어휘 정리

지문을 다시 읽으며 모르는 어휘를 전부 정리합니다.

2단계. 해석 및 이해

정리한 어휘를 활용해 한 문장씩 해석해 보며,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이해합니다.

3단계. 정답 근거 표시

정답을 결정한 핵심 문장들을 형광펜 또는 색 펜으로 표시합니다.

4단계. 오답 분석 & 개선 코멘트 작성

틀린 문항은 '왜 틀렸는지' 혹은 '어떤 사고과정이 부족했는지'에 대해 지문 아래에 한 줄 메모로 남깁니다.



CONTENTS

Chapter 1. 빈칸추론

SET 01 빈칸추론	010
SET 02 빈칸추론	014
SET 03 빈칸추론	018
SET 04 빈칸추론	022
SET 05 빈칸추론	026
SET 06 빈칸추론	030
SET 07 빈칸추론	034
SET 08 빈칸추론	038

Chapter 2. 함의추론

SET 01 함의추론	044
SET 02 함의추론	048
SET 03 함의추론	052
SET 04 함의추론	056

Chapter 3. 어휘/장문

SET 01 어휘	062
SET 02 어휘	066
SET 03 장문	070
SET 04 장문	072

Chapter 4. 순서

SET 01 순서	076
SET 02 순서	080
SET 03 순서	084
SET 04 순서	088

Chapter 5. 삽입

SET 01 삽입	094
SET 02 삽입	098
SET 03 삽입	102
SET 04 삽입	106

✦ ANSWER KEY 정답 및 해석	114
----------------------	-----

불수능 완벽 대비!

수능 영어 고난도 유형별 N제의 기준

END GAME | N제 |





Chapter

1

⋮

빈칸추론

0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ccording to Wittgenstein, the purpose of philosophical propositions is not to convey factual knowledge but to clarify the limits of what can meaningfully be said. In his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he describes his own propositions as a kind of ladder: once a person has used them to reach a clearer view of reality, they must be discarded. As he puts it, “Anyone who understands me eventually recognizes them as nonsensical—He must, so to speak, throw away the ladder after he has climbed up it.” His propositions are meant as elucidations—they help one rise above confusion but are not truths in themselves. One must transcend these propositions to “see the world aright,” not by accumulating more knowledge, but by letting go of the need to say what cannot be said. The role of philosophy, then, is not to provide ultimate answers, but to show that some questions dissolve when their confusion is removed. In this view, philosophical languages serve as _____ tools for self-overcoming. Thus, the true solution to philosophical problems lies not in solving them in the usual sense, but in recognizing their confusion and eventual disappearance.

*elucidation: 설명

- ① empirical
- ② temporary
- ③ abstract
- ④ complex
- ⑤ nonsensical